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對EU '그린란드 관세 철회'하고 무역 사용 배제 인수 협상은 요구

- 미국, 대법원은 연준 국 이사 해임 경제, 12월 잠정주택판매는 전월비 저조
- ECB 총재, 유럽 경제 새로운 국제질서 직면 영국 12월 소비자물가는 상승세 강화
- 국제에너지기구(IEA), 금년 석유 수요 전망 상향. 다만 공급과잉 여건은 지속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그린란드 관련 관세 철회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강화

주가 상승[+1.2%], 달러화 강세[+0.1%], 금리 하락[-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유럽과의 긴장 완화 기대 등으로 상승
유로 Stoxx600지수는 트럼프의 관세 철회 전 무역 갈등 우려 등으로 약보합 마감
- 환율: 달러화지수는 '셸 아메리카 트레이드'의 반전 등으로 소폭 상승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對유럽 위협 감소, 일본 국채금리 하락 등이 반영
독일은 그린란드 관련 미국과의 무역충돌 불안 해소 등으로 2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463.3원(스왑포인트 감소 시 1464.9원, 0.43% 하락). 한국 CDS 약보합

		1/21일	1/20일	전일대비			1/21일	1/20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75.6	6,796.9	+1.16%	국채 금리 10y	미국	4.24%	4.29%	-5bp
	유럽	602.67	602.80	-0.02%		독일	2.88%	2.86%	+2bp
	중국	4,116.9	4,113.6	+0.08%		영국	4.46%	4.46%	+0bp
	일본	52,775	52,991	-0.41%	CDS 5y	한국	21bp	21bp	-0bp
	한국	4,909.9	4,885.8	+0.49%		중국	42bp	44bp	-2bp
환율	달러지수	98.78	98.64	+0.14%	위험 지표	EMBI+	-	264	-
	유로화	1.1685	1.1725	-0.34%		VIX	16.90	20.09	-15.88%
	엔화	158.30	158.15	-0.09%		WTI유	60.62	60.36	+0.43%
	위안화	6.9648	6.9608	-0.06%	원자재	구리	580.6	581.3	-0.11%
	원화	1,471.3	1,478.1	+0.46%		금	4,831.7	4,763.4	+1.43%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對EU '그린란드 관세' 철회하고 무력 사용 배제. 인수 협상은 요구

-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시행할 예정이었던, EU 국가들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그린란드 더 나아가 북극 지역 전체에 대한 '미래 협상의 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 다만, 덴마크가 그린란드 양도를 위한 협상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기에, 이것이 갖는 구체적 의미는 불분명
- 아울러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인수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을 요구. 또한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 베센트 재무장관은 덴마크 연기금이 미국 국채 매도를 발표했으나 규모가 1억 달러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라고 일축
- 러트닉 상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인사를 대거 이끌고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것은 기존 국제경제 질서에 도전하기 위해서라고 발언. 세계화 정책이 자국 노동자들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하고, FT 기고문을 통해서도 세계화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새로운 성공 모델로 제시
- 한편, 유럽의회는 미국과 합의된 무역협정 승인 절차를 전면 중단. 이는 미국의 공세가 심해지면서 EU 역시 기존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식 행동으로 이어진 결과. 유럽위원회의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역시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반격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 또한 유럽 전체가 광범위하게 안보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대법원은 연준 쿡 이사 해임 경계. 12월 잠정주택판매는 전월비 저조

- 연준 쿡 이사의 해임과 관련된 심리에서 대법관들은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 또한 쿡 이사의 사기 연루 의혹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사실관계 다툼이 가능하여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피력. 쿡 이사가 직분을 유지한다면, 트럼프의 연준 재편 시도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
- 한편, 작년 12월 잠정주택판매지수는 71.8로 전월비 9.3% 하락, 5개월 만에 최저. 대출금리 하락에도 저가주택 공급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Wedbush, 미국 기술주 급락은 매수 기회. 유명 투자자 달리오의 자본전쟁 경고

- Wedbush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미국 기술주가 급락할 경우 이는 저가 매수 기회라고 분석. AI 혁명은 이제 시작이라고 진단. 한편, Bridgewater Associates의 레이 달리오 설립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대외정책이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보유 축소로 이어져 자본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 ECB 총재, 유럽 경제 새로운 국제질서 직면. 영국 12월 소비자물가는 상승세 강화

-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 경제가 새로운 국제질서에 직면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심도 깊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 미국이 관세를 부과해도 인플레이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지만, 훨씬 심각한 문제는 끊임없는 불확실성이라고 지목
- 한편, 영국 작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연간 상승률은 3.4%로 전월(3.2%)에 비해 오름세 강화. 다만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물가 억제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인플레이션은 다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 부총리, 내수진작 및 무역불균형 개선 강조. 서비스시장 개방도 확대할 방침

- 허리펑 부총리는 금년 최우선 과제로 내수진작을 거론. 또한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입을 늘리고 서비스시장 개방도 확대할 것이며, 제조업 강국을 넘어 소비 강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발표
- 한편, 부동산 기업 완커는 채권자들과 일부 회사채 원금 상환 1년 유예 합의. 이에 단기간 내 채무불이행 위험은 대폭 줄어든 것으로 평가

■ 국제에너지기구(IEA), 금년 석유 수요 전망 상향. 다만 공급과잉 여건은 지속

- 월간 보고서를 통해 금년 석유 수요는 경제 여건 개선 및 유가 하락 등으로 전년비 일일 93만배럴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금년 석유 공급량은 여전히 수요를 일일 369만 배럴 초과할 것으로 추산. 1/4분기도 공급과잉을 예상. 한편, 공급과잉이 지정학적 위험을 상쇄하면서 유가 상승이 억제되고 있다고 분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2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3/4분기 GDP, 11월 PCE 물가지수, 1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
- 미국 10월 개인소득 및 지출, 호주 12월 실업률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글로벌 채권시장, 나비 효과 등의 이유로 가격 급락에 취약할 소지 - 블룸버그

(Why Global Bond Markets Are More Prone to Flash Crashes)

- 미국과 일본을 포함, 전 세계 국채시장의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으며, 다음의 이유로 가격 급락 가능성이 증가. 첫째, 일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나비효과. 이는 일본 기관투자자의 보유 채권 매도, 일부 해외투자자의 미국 국채 매도 및 매력적인 금리의 일본 국채 매입 등을 유도하여 글로벌 채권 수급의 변동성 증가를 초래
- 둘째, 트럼프의 그린란드 위협 등 지정학적 위험 확대로 유럽이 보유한(3.6조달러) 미국 국채의 매도 가능성. 셋째, 채권 보유로 인한 위험 분산 효과 감소(22년 가격 급락) 등으로 60(주식)/40(채권)의 전통적인 투자 모델 신뢰도 저하. 이에 선진국 국채 보유에 합리성이 결여되며, 금 등 다른 대안이 부각(Morgan Stanley)

■ 유럽의 미국産 천연가스 의존 심화, 對美 그린란드 전략의 취약점 - Reuters

(Europe's energy weak spot reemerges in Greenland dispute)

-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맞서 유럽은 대응책 마련에 고심이나 미국産 천연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감안하면 관련 지정학적 갈등에 취약할 소지. 유럽은 라우 전쟁 여파로 러시아産 천연가스 공급이 어려워져 미국産 수입 규모를 지속 확대
- 또한, 작년 8월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2,5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구매에 합의. 유럽은 이와 같은 약점을 인식하고 원자력 발전 등 대안 마련을 고심하지만, 실제 미국의 수출 제재 시 상당한 부담에 노출될 우려

■ 신흥시장, 금 등의 안전자산 보다 실제 투자심리 판단에 유용 - Financial Times

(Emerging markets are a better gauge of investors' mood than gold)

-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불안심리가 심화될 경우 투자자들은 헤지 수단으로 금, 은과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 그러나 투자심리 판단을 위해 안전자산보다 신흥시장에 대한 평가가 더욱 낫다는 의견 제기
- 실제로 최근 신흥국 증시가 선진국 증시에 비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실물경제 지표로서 평가가 가능해 투자심리 판단에 유용하기 때문. 특히, 최근 신흥국 투자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 및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 등 낙관적 전망 반영. 한편, 미국 금융자산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신흥국 증시가 강세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여전한함을 시사

■ 미국의 對유럽 압박, 서방 동맹 훼손 및 정책 비용 확대를 초래 - 블룸버그

(Why is America dismantling the western alliance?)

- 미국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유럽 국가들에 위협을 가하는데, 이는 나토동맹을 약화시키고, 적대국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상황을 초래. 결과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었던 전략적 목표를 불필요한 갈등으로 전환
- 이러한 접근법은 복구가 매우 어렵거나 영구적인 피해를 남길 가능성.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은 이를 '속국화 위협'으로 규정하며 보복을 촉구한 가운데, 유럽에서는 미국과의 파트너십 신뢰가 과거와 같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
- 한편, 추가 관세 부과 시 실질적 피해자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이며, 무역 전쟁이 격화될 경우 자산가격 급락, 장기금리 상승, 재정 불안 등 금융시장 리스크가 고조될 우려. 미국은 압박보다 협력을 우선하는 외교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 미국 금융권의 '타코 트레이드' 기반 위험자산 선호, 변동성 확대 경계 요구 - 블룸버그

(Wall Street's TACO Trade Runs Into Problem of Its Own Making)

■ 일본 당국의 국채시장 안정화 시도, 재정 신뢰 저하로 효과는 제한적일 소지 - Reuters

(Japan may struggle to calm markets tripped up by Takaichi's taboo tax cut)

■ 라우 평화 협정, 트럼프의 그린란드 문제 집중으로 무산 위기 직면 - Financial Times

(Trump row over Greenland derails Ukraine postwar d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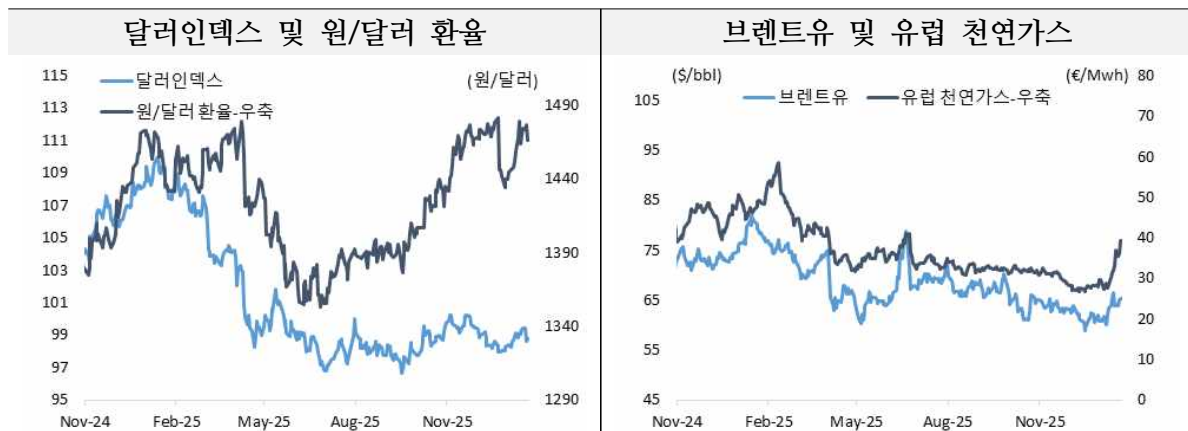
■ WTO 개혁 과제, 최혜국 대우 원칙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 Financial Times

(The WTO needs an overha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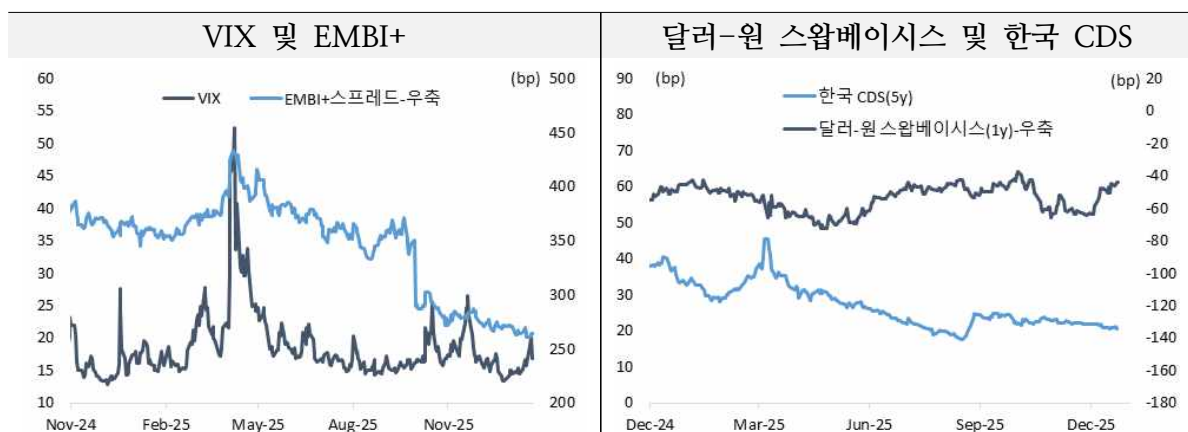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